

고난 앞에서 편집되어야 할 삶과 복음을 알려준 거듭난 베드로 -복음으로 여는 베드로전서-

레위기 11:45, 베드로전서 1:13-16

정윤돈 목사님

“태초에 우주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어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도저히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누리다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를 향한 천명, 소명, 사명과 후대복음화를 다시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성일과 주일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있어 버리고 적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신앙에 있어서도 단계와 수준과 목표와 방향이 있다는 것이다. 태권도만 하더라도 초급, 중급, 고급, 세계적인 수준이 있지 않은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의 첫 단계는 예수를 믿지 않는 단계이다. 그 다음 단계는 믿는 단계이고, 믿었으면 이제는 전하는 단계인 것이다. 전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하지 않는 것과 전하는 것은 다르다. 초특급으로 가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순교도 기쁘게 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증거할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런 단계를 우리들에게 다시 정리해주는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수준이 어느 단계인지, 어떤 단계에 도전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언약으로 붙잡고 제자리에 서있는 믿음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가만히 서 있으면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 의하여 보내진 공동서신이다. 베드로는 성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교육에 있어서도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복음을 받은 지 30년 후에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베드로는 단순하며, 즉흥적이며, 감성적이며, 변덕스러운 사람이었다. 또한 베드로전서는 5장 12절의 내용으로 볼 때 실루아노를 통해서 대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베드로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보고 있는 학자도 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시기는 AD.63년에서 64년경으로 보고 있다. AD.64년부터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핍박이 오기 전에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베드로 사도는 심한 핍박 중에서도 승리하고 있는 세계에 흠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를 보낸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앞으로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위한 순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정도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8절에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

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오직이다. 오직 구원 받았으면 끝난 것이다. 죽어도 좋고, 고난 받아도 좋고, 모든 것을 잃어도 좋고, 순교해도 좋고, 사자에게 물려도 좋은 것이다. 이것이 오직이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것일까? 그 이유는 앞으로 교회 안과 밖으로 더 심한 문제들이 다가올 것을 미리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듭난 베드로 사도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 두 가지를 편집해 주었다. 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이었고 또한 가지는 복음과 관계되는 내용이었다. 결국 베드로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의 길이지만 오히려 미리 보고 준비하여 코로나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더 큰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다.

1. 첫 번째로 고난 중에서도 더욱 힘써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 고난 중에서 승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 더 온전하고 거룩한 삶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포기하고 두려워하거나 심지어는 자살도 생각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때 더욱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상적인 삶에 도전하라고 말한다,

(1) 불신자 때 따르던 세상 사람들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창 3장, 6장, 11장)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치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중독치유 12단계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중독치유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이다. 이 중에 6단계가 목숨을 걸고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정도로 변화되지 않으면 중독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불신앙도 중독이다. 중독자들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것이다. 중독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겸손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영적인 것과 똑같다.

(2)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이 거뭇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의 뜻은 ‘가까이 못하게 하다’, ‘억제하다’, ‘멀리 떨어지다’이다. ‘제어’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중독치유 12단계이다. 앞으로 참사랑 RUTC에서는 중독치유센터를 만들어야 하겠다. 그 팀을 위한 카톡방을 운영하려고 한다.

(3) 미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겠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미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어떻게 사탄미귀와 대적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이것은 사탄의 역사야”라고 선포만 해도 된다. 급한 경우나 누가 있을 때는 생각만 해도 된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 내셨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란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고백하기만 해도 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5장 8절에 대적미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사탄은 창세기 3장부터 인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수준, 표준이 되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 없다.

(4)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마음과 육신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복음과 말씀을 계속 듣고 작은 실천에 도전하면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도전해야 할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권하는 실천리스트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① 1장 22절이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고급 신앙의 수준이다. 중독자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다. 2장 1절에서 2절이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지면 그때부터 치유가 된다. 국가와 제도에 대한 말씀이다. 2장 14절이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② 직장생활에 대한 말씀이다. 2장 18절이다.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③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이다. 3장 1절과 7절이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④ 사회생활에 대한 말씀이다. 3장 8절에서 11절, 16절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⑤ 개인의 도덕적인 삶에 대한 말씀이다. 4장 3절이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죽어도다'

⑥ 교회생활에 대한 말씀이다. 4장 8절에서 10절이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⑦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5장 2절에서 3절이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⑧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5장 5절이다.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2. 두 번째로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와 복음과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1)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달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 소망(부활, 천국)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부활과 천국)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보좌의 축복)'

(2)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3)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선지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왕,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하나님의 나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불신자상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복음)을 선포하게(전도자)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른 이유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미션이다.

(4)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수준의 고급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절대목표인 '서밋믿음'의 모습이다.

(5) 다음은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묻더라도 신학적으로 답을 해줄 수 있도록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신다.

(6) 또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7) 진정으로 완전 복음에 이른 그리스도인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성도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겠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를 맡기는 정도가 아니었다. 로마의 핍박과 순교 앞에서도 기뻐했을 정도였다. 이때 사탄은 조금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은 사탄에게 쉽게 속을 수 있다.

결론으로 오늘도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거룩하고 온전한 삶과 복음을 붙잡아야 하겠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와 5천종족들에게 이 온전한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죽음 앞에서까지 교회와 성도를 더욱 온전하게 지키고자 했던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과 후대들을 통하여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당연, 필연, 절대적인 미래를 위하여 조금만 집중해서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그림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주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신 실천목록과 복음 중에서 내가 꼭 붙잡고 실천해야 할 말씀을 한 가지라도 찾아보시기 바란다.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참사랑 RUTC와 현당의 주역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할 방향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결국은 로마와 세계를 정복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은혜의,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